

# 순창군, 인문학 부흥지로

### 인문독서 아카데미·섬진강 독서문화 캠프 등 호응 얻어... 기반시설 구축도 앞장

순창군이 인문독서 문화향유 프로그램 유치에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근 대도시와 다르게 지역특성상 군단위 지역에서 인문학 강의, 토크 콘서트 등 인문학 분야의 수준 높은 강의나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과 경제적 이유로 주민들이 공연 관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민간분야의 자체 인문학 프로그램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황갑연(전북대), 조법종(우석대), 홍영기(우석대) 교수를 초청해 진행한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그 동안 인문학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졌던 수강생들의 의식을 깨우는데 한 몫했다.

이외에도 지난 7월과 8월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는 주제로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에서 섬진강 독서문화캠프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100여명이 꿈, 환경, 친구, 우리동네, 공동체, 문화 등 6개의 테마로 체험형 책방을 만들고 작가들이 참여해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등



순창군이 인문독서 문화향유 프로그램 유치에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순창군을 인문독서 부흥지로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군은 인문학 프로그램 유치 등 소프트웨어 구축 뿐 아니라 기반시설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5년 동계 작은도서관 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 구립 작은도서관을 개관 했으며, 올

12월말이면 삼치면에도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군 이정형 관장은 "군립도서관은 순창군이 인문문화 부흥지로 앞장서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유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조성에도 앞장서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옷 발표식품 가치창조 선도 교육실시

### 농업발전 생산능가 역량 강화 옷나무 재배기술 향상

임실군이 특화품목인 옷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능가의 역량강화에 앞장서고 나섰다.

군은 옷 생산능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임실군 농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옷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옷 발표식품 가치창조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옷 산업의 가치창출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옷 생산능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옷 발표식품 가치창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옷나무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승형 (주)산농연구소 대표는 세부 운영조직화 방안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이해와 운영사례를 최민규 전북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처장은 귀농귀촌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각각 실시했다.

군은 2013년부터 신덕면 금정리 일원을 중심으로 107ha의 옷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2023년까지 신덕면과 운안면 일원까지 확대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군은 2018년도 옷 발표식품 가치창조사업과 관련 2018년도 농림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공모에 선정, 2021년까지 총 68억원을 투입하여 옷 공동이용시설 구축과 기능성 식품 및 소재 개발, 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의 특화품목인 옷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능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전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임실군 옷 생산능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임실군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치유농업 교류 한·일간 교류 협약

순창군에 소재한 치유농업 영농조합법인(회장 김기열)과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이타정 약초협회(회장 오카타니 신지)는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주제로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순창군 풍산면 가이아농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측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치유농업 영농조합법인 김기열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새로이 인연으로 향후 서로 긴밀히 교류해 멋진 국제적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가미이타정 약초협회는 또한 50종의 약초를 재배하고 그 약의 효능 등을 연구해 약주, 건강차로 가공해 출



제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관광 핫플레이스가 뜬다

### 남원에촌서 '꽃담장' 27일 개장

남원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한루원 인근에 신설된 남원에촌 일원에서는 남원 관광 핫 플레이스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꽃담장'이 오는 27일 개장한다.

시민과 여행객이 함께 모여 최근 문을 연 남원에촌 생태문화장터 '꽃담장'에는 지역내외에서 문화 작가와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50팀 이상이 불리고 단체관광 코스로 연계되면서 성공적인 개장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행사에서는 친환경 플러마켓(버룩시장과 수공예문화시장)과 함께 예술 마임과 코미디공연전,

조깅과 명무 공연이 펼쳐지며 걷고 산책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광한루원 트랜스워킹, 저녁에는 재즈&수제맥주 파티 예찬사롱이 준비되는 등 맑은 가을날 한옥과 꽃그리고 음악과 장터에 사랑과 행복의 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오는 27일과 11월 3일, 10일 등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관광형 생태문화장터 꽃담장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는 등으로 광한루원 체류화 및 관광객 동선확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 아리

## 남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기관 55개소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언제든지 심폐소생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점검하는 것이다.

현지점검 확인 후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변경, 정상작동여부 등 즉시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일정기간 이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기업투자 활동 저해

### 규제개혁위해 시민 소리 청취

남원시가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개혁을 위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과 기업과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고 개선키를 위해 관내 300여 기업체에 규제예로 신고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서한문에서 이환주 시장은 "기업 및 시민의 규제예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 규제신고 센터에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당부하며 해결방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도내 1위, 2017년에는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개혁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민생규제나 불합리한 행정서비스 등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남원시청 민원실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규제개선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건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규제개혁위해 시민의 소리 청취

남원시가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개혁을 위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과 기업과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서한문에서 이환주 시장은 "기업 및 시민의 규제예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의회, 인천공항 직행버스 지속운영 실현 투쟁

임실군의회가 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 지속운영을 요구하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해 운영이 실현될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에 대해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독점운영되던 대한관광 리무진에 비해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임실군민에게 교통소의 감을 해소시켰다.

임실군민의 공항버스 이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과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특정 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관계자는 "임실군민은 금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익적 패러다임으로 조변석개하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